

직업훈련기관 느는데 취업률은 하락

도내 훈련기관 2017년 45개→작년 63개 운영
제과·미용 등에 집중… 취업률 전국보다 낮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직업훈련 필요”

제주도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률과 훈련과정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제주지역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직업능력 개발 훈련기관은 지난

2017년 45개에서 지난해 63개로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은 13개에서 34개로, 학원은 8개에서 15개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2개에서 3개로 증가했다. 또 사업주 지원금 훈련기관수는 54.7%(35개)로 전국 평균 47.4%보다 높았으나 훈련과정수는 34.3%(98과정)로 전국 평균 38.6%보다 낮았다.

아울러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기관수 비중은 4.7%로 전국 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훈련과정수 비중은 3.8%로 전국 7.1%에 비해 저조했다.

이에 반해 정규 고등교육기관 공급 현황(취업률)을 보면 제주지역 일반대학교와 전문대학은 전국보다 3%정도 낮고 일반 대학원과 폴리텍대학은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텍 대학은 전국 28개 캠퍼스에서 7351명의 졸업자를 배출했으나 제주는 16명 배출에 그쳤다.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는 융합디자인에서만 훈련생을 배출했으나 전국 폴리텍대학에서는 기능장과 하이테크, 학위 전공심화, 여성

취업, 신중년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국제대 A교수는 “제주에는 제과, 미용, 바리스타 훈련 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인공지능 기술인, 영화감독 양성교육을 하고 있어 충격을 받았다”며 “현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실업자계좌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추진하는 훈련기관도 설립해야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도-산학 일체형 산학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대모기자**

“소나무 집단고사 솔껍질깎지벌레 때문”

산림과학원·도, 어제 현장조사서 유충 발견
한경면 인접 한림지역서도 비슷한 피해 확인

속보=제주시 한경면 일대 소나무 집단 고사 사태(1월 27일자 1면)는 솔껍질깎지벌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또 한경면과 인접한 한림읍에서도 솔껍질깎지벌레에 의한 피해로 추정되는 소나무 고사 현상이 발견돼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솔껍질깎지벌레는 재선충과 함께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3대 산림 병해충으로 꼽힌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현역한 산림환경연구과장은 “최근 한경면 일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 피해 소나무에서 솔껍질깎지벌레 후약충이 발견됐다”며 “또 소나무 중간부터 말라 죽는 등 고사 양상이 솔껍질깎지벌레에 의한 피해 형태와 비슷해 한경면 일대 소나무는 이 벌레에 의해 집단 고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고 9일 말했다.

또 이날 세계유산본부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한경면 일대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는 솔껍질깎지벌레 후약충뿐만 아니라 전성충도 발견됐다.

솔껍질깎지벌레는 알에서 부화해 약충-정착약충-후약충-전성충-고치-성충 순으로 성장하며, 이 중 발이 보이지 않고 둥근 점 형태의 후약충이 소나무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

세계유산본부와 제주시는 올해 초 한경면 낙천리와 조수리 2개 마을에서 소나무 4900여 그루가 집단으로 말라 죽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료 채취를 통한 검정 조사와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단 세계유산본부는 고사 원인을 최종 확인하려면 오는 5월쯤 날개 달린 수컷 성충이 집단으로 출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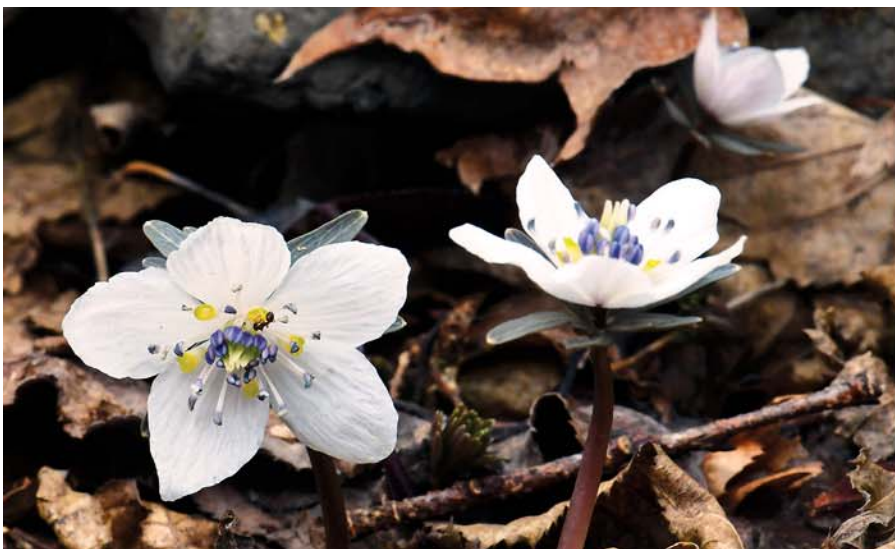
솔껍질깎지벌레 후약충.

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경면 일대 소나무에 성충을 유인해 포획하는 페로몬 트랩을 설치했다.

또 제주시는 소나무 고사 상황을 관찰하는 용역업체가 한경면과 인접한 한림읍에서도 소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고 통보해오며 따라 그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림읍도 한경면처럼 소나무 중간부터 말라죽는 등 고사 형태가 솔껍질깎지벌레 피해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피해 원인이 잠정 결론난 한경면 일대 소나무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을 얻어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솔껍질깎지벌레는 수액을 빨아먹지만 재선충처럼 나무속까지 침투해 수관(물이 이동하는 통로)을 막는 것은 아니어서 썩은 가지만 잘라내면 소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다.

한편 솔껍질깎지벌레는 지난 2014년 추자도에서 처음 발견돼 이 지역 해송림을 초토화 시킨 뒤 2018년 제주 본섬까지 침투했지만 고사 규모는 이후 매해 수백 그루에 그쳤다. 따라서 본섬 내 단일 지역에서 수천 그루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기자**



“봄님이 오시네”... 변산바람꽃·복수초 ‘활짝’ 9일 제주도 봉개동 절물자연휴양림 인근 숲속에 변산바람꽃(왼쪽)과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강희민기자**



절물자연휴양림 작년 60만명 찾았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중 ‘최다’... 수입액 12억 육박

제주시 봉개동에 자리 잡은 제주절물자연휴양림이 지난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절물휴양림에 따르면 2022년 절물휴양림 이용객은 59만5000명

으로 전년 대비 방문 인원이 33.8% 늘었다. 수입액은 11억8000만원으로 이 역시 전년과 비교해 63% 증가했다. 1일 평균 방문객은 1600여 명이고 주말에는 그보다 많은 2500여 명이 이용했다. 이 같은 방문객

규모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6개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절물휴양림 측은 이에 대해 “체험형 숙박시설과 넓은 주차장 같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설이 갖춰져 있는 등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를 잘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997년 문을 연 절물휴양림은 총 300ha의 면적에 30~45년생 삼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휴양림 내

에는 산책로, 약수터, 폭포, 연못, 잔디광장, 목공예체험장,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이 조성됐다. 절물휴양림에서는 올해 일부 노후된 데크·숙박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한나야 미안해”... 4면 / 초등 신입생 545명 감소... 5면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향토기업 (주)팜그린텍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IP55 방진방수인증

※ **농업중요외 자재계약업체**
※ **조달청 상품 등록업체**

특허 제 10-2078975호
특허 제 10-2182942호
특허 제 10-2451228호

환풍기(800W)

환풍기 기능을 통해 비닐하우스내 내압을 높여 태풍으로부터 하우스 지지 및 보호

-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강화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2023년 FTA 보조사업 품목

결상에 대비한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

태풍 또는 기타 사유로 전원 정전(결상)시 자동개폐기 전원을 안정되게 공급하여 고온피해 예방

- 특허 제10-2196685호
- 정전(결상)시 하우스개폐기 전원 자동변환 고온피해 예방

2023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품목

하우스지킴이

고온,저온 설정 범위 초과시 휴대용 알림기능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와 연동시 상변환 알림기능

- 최대 5인까지 휴대용 알림등록 가능

공기교반기(60W, 130W)

교반기(60W) | 교반기(130W)

- 특허 제 10-2078975호
- 바람관 도출구로 인해 공기유출을 사리지대 최소화(특허)

상분리 제어기

- 32인 상분리 팬 제어 가능
- 자동, 수동 모드
- 온도, 시간 설정에 따른 제어 가능

송풍팬(60W, 130W)

송풍팬(60W) | 송풍팬(130W)

- 피아트 체결용 고정구가 있어 안정적이고 광범한 송풍력 시공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모터(60W, 130W)

- 특허 제10-2078975호
- 모터캡 사용으로 방습, 방진으로 부터 모터 2중 보호(특허)
- 모터내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신입사원 모집

제품 조립 및 현장 설치작업
(워크넷 채용모집 참고)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